

군산국가유산야행, 국가유산 활용 '우수'

국가유산청 우수사업 평가서 수상... '피너클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이어 쾌거

'군산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8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가유산청 주최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기획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참여한 전국 47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산국가유산야행'은 2016년 첫해 우수사업 선정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으며 군산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1일 개최된 '피너클 어워즈' 2개 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됨으로써 시는 '군산국가유산야행'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군산국가유산야행'을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독창적인 야간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군산만의



'군산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8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가유산청 주최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 특별함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연말 수놓은 합동무대 '송년음악회'

군산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성료

군산시립예술단이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합동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한 해의 공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송년음악회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힘찬 연주 위에 시립합창단의 안정감 있는 화음이 더해져, 조화롭고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아울러 국내외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트럼펫 연주자 성재상이 협연자로 참여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무대의 집중도를 높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청소년 광한루원 해설사 프로그램 누적 300여명 참여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은 2025년 한 해 동안 청소년 광한루원 해설사 프로그램(이하 해설사)을 총 9회기 운영해 누적 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설사는 남원의 상징이자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의 역사와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해설사로 참여하며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해설사들은 남원을 방문한 타 지역 청소년(아산·익산)을 대상으로 한 해설 활동을 비롯해,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찾은 관광객과 남원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해설을 진행했다.

또한 또래 청소년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해설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관광 홍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문화원, 송년 어울림 축제 성료

고창문화원(원장 이현곤)이 지난 18일 동리국악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어울림 축제인 '2025 문화로 함께, 예술로 고창연(高敞燕)'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고창문화원 문화학교를 통해 한 해 동안 실력을 갈고닦은 12개 동아리 팀의 공연 발표회와 더불어, 회원들이 하나 되는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를 통해 축제의 막을 올렸으며, 이어지는 공연 부문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부 행사에서는 코미디언 서봉식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흥을 더했으며, 각계각층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어 참여한 회원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8)

신당을 없애라고?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 봉림 놈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업신여겼습니까. 봉건사상에 찌들고 일제에 부역한 놈들인 주제에 감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우습게 보다니요. 이 세상은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작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마을 자위대는 곧 봉림 놈들을 응징하고자 말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짜짜짜!"
박대우 옆에 서 있던 자위대원이 힘차게 박수를 치자 다른 주민들도 함께 손뼉을 쳤다. 박규환과 연기대, 박명희도 박수를 치는 척 두 손바닥을 부딪쳤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박규환과 연기대도 걱정어린 눈으로 봉림 마을을 쳐다봤지만 명희의 마음은 더 안절부절못했다. 봉림마을에, 다른 누구도 아닌 강남준이 있지 않나.

사람들의 눈이 아무리 많아 해도 명희가 남준에게 달려가는 걸 막지는 못했다. 전쟁 중이었지만 학교는 열었고 소년단원으로 편성되어 물자운반 등 노력동원에 동원되었는데 그런 사이에 명희는 남준을 만날 수 있었다.

명희는 남준을 다른 아이들의 눈을 피해 한쪽으로 데려갔다.

"대우 삼촌이 자위대장을 맡았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신당을 없애라고 그랬어." 남준의 눈이 황소의 그것처럼 커졌다.

"신당을 없애라고?"
명희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전에도 가끔 찾아와서 곳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체 종교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야.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정말 곳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품에 안은 것처럼 남준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신당을 없애는 일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게 말아야..."

남준과 명희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
"무슨?"
명희는 남준의 표정을 살피며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내우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봉림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 아무래도 큰일이 날 것 같아."

남준은 한동안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을 못했다. 박대우가 봉림을 버리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였다.

"하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 자위대장이라 해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긴 하지."

걱정했던 것보다 남준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 명희는 마음 부담이 덜했다.

"그것보다도 앞으로 곳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그게 가장 걱정이 돼.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왔는데 물거품이 된다면... 흠향..."

명희는 말끝에 울음을 매달았다. 옆에 앉은 남준은 명희의 어깨를 끌어다가 안았다. 팔아 안는 것 이외 달리 위로해줄 말이 없었다. 남준도 명희의 마음처럼 울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한 달을 숨도 쉬지 못하고 지내고 있을 무렵 미군과 국군이 인천에 상륙했고, 군산 소식에도 들어왔다는 소문이 새벽 안개처럼 조용히 마을에 퍼졌는데 며칠 후 전북경찰대가 전주를 수복했다는 말이 돌았고 곧 고창에도 진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파랑새가 되어 날아왔다.

그런 소식이 퍼지면서 마을 인민위원회나 자위대, 청년단, 소년단은 더 바빠졌다. 물론 의용군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벌써 전선으로 보내졌고,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 정규군과 고창내무서 직원들은 철수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